

백화점들, 극진한 VIP 관리

신세계·롯데·현대백 매출 80% 올리는 상위 20% 고객 마케팅 강화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상위 20% 고객들인 VIP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백화점들은 오는 2014년 광주-서울간 1시간20분대 주파 가능한 KTX 개통을 앞두고 우수고객을 서울백화점에 뺏기지 않기 위해 VIP·MVG 고객들 마음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 이용시설 확대와 보강 ▲VIP 이용시설 통합서비스 공간 활용 ▲VIP 문화 연계 체험 기회 강화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VIP이용 시설인 멤버스라운지, 커뮤니티라운지를 확대하고 발레 파킹 대기실도 신설한다. 또 VIP 이용시설을 통해 스킨케어와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마 초대회 등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예정이다. VIP를 대상으로 유스퀘어를 통한 특별 공연 관람, 갤러리 특별 관람을 진행한다.

현재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연간 백화점 구매금액 적립에 따라 트리니티(전사 상위 999명), VVIP(연간 3500만원), VIP(연간 800만원)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트리니티회원은 정상상품과 세일상품과

지 5% 특별할인(일부명품 브랜드, 임대매장 제외)을 받을 수 있고, VVIP, VIP 회원은 정상상품 5% 특별할인을 받는다. 이외에 트리니티회원은, 식품권 최대 3% 할인, 신세계 아카데미 5% 할인, 전점 발레 파킹 및 종일 주차 서비스, 조선호텔VIP 멤버십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지난해 트리니티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으나 VVIP, VIP는 각각 25%와 6%의 증가율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퍼스널 쇼퍼'를 운영, 개별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퍼스널 쇼퍼는 MVG고객에게 쇼핑에 대한 컨설팅과 스타일 제안, 개별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나이·직업·평소스타일·성격·취향·사이즈 등을 사전에 분석해 그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하고 의견 질충 후 쇼핑을 대행하거나 동행하는 서비스다. 또한 고객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1:1 마케팅 및 개인별 문학, 예술, 공연, 여행 등 차별화된 문화마케팅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연간 구매금액에 따라 'MVG-P(Prestige·연간 5000만원)', 'MVG-C(Crown·연간 3000만원)', 'MVG-A(Ace·연간 1500만원)로 구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MVG-P와 C는 전년 대비 각각 22%와 2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MVG-A의 경우 1% 성장률에 머물렀다.

이들의 혜택으로는 MVG, VIP 스티커 발급을 통해 2층(MVG)과 5층(VIP)에 2개의 전용라운지를 운영해 다양한 음료와 차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백화점에서 롯데카드도 구매할 경우 5% 특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식품, 가전, 피아노, 식당, 상품권 제외)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등 5%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되며, 주차시 발렛파킹 서비스와 기념품 생일축하 선물, 명절 선물 증정 서비스 등이 진행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자스민(연간매출 3천500만원)' 고객과 '플레티늄(1천500만원)' 고객에게는 별도의 전용 VIP 룸이 제공된다. 음료와 캐디링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일 1회 사용 가능하다.

또 자스민고객과 플레티늄 고객은 상품 구매시 정상상품 5% 특별 할인과 현대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각 5%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되며, 주차시 발렛파킹 서비스와 기념품 생일축하 선물, 명절 선물 증정 서비스 등이 진행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화사한 꽃으로 봄맞이 나가요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지플리워 매장에서는 최근 화사하고 형형색색의 봄 맞이 꽃을 선보여 집 단장을 하려는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봄 꽃의 대표적인 목련, 매화, 난년클로스 등 다양한 봄 꽃이 3월 말까지 고객들을 유혹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금리상승 따른 실적개선 은행·보험 업종 등 유망

KOSPI가 지난주 급락세를 보이며 1,980선마저 내주고 말았다. 반면에 2월 들어 선진국 증시는 이집트 정정불안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KOSPI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호전으로 연휴 이후 선진 시장과 동반한 상승흐름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100포인트에 가까운 하락세로 장대 음봉을 그려내며 1,977선 까지 물러났다.

최근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한 상황이다.

국내증시도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전월 대비 0.6%p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1월 고점대비 7% 가까운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은행의 전방에 따르면 수요 증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로 당분간 4%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추가하락 우려도 높아질 전망이다.

인도를 비롯한 이머징 아시아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이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1월까지 5개월 동안 13.8조원의 매수우위를 기록했던 외국인도 2월 들어서만 2.4조원의 매도세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하락 폭이 심화되고 있고, 금리, 환율 등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지표들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외국인 등 수급 요인에 의한 업종별 차별화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중심의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당분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등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는 철강금속과 은행, 보험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유망해 보인다.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수출 보다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아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에서 유리하며, 2월 중 외국인 매도강도도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은행 및 보험 업종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자산건전성 회복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경기 모멘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자동차 등의 기존 주도주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관심을 유지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구제역으로 원유 공급 급감 우유 이어 제과업계도 '비상'

구제역으로 원유(原乳) 공급량이 급감한 가운데 버터, 생크림, 탈지분유 생산량도 줄어들면서 제과업체들도 '비상'이 되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탈지분유 제조량은 작년 12월 988t(낙농진흥회 통계)으로, 2009년 12월의 4137t보다 77.3% 감소했으며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각 유업체의 생크림과 버터 생산량도 급감했다. 원유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한 데 비해 생크림과 탈지분유 생산량 감소 폭은 그보다 훨씬 큰 40~50%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당장 우유 생산량도 맞추기 어려워진 유업체들이 원유 잉여분으로 만들어 온 생크림과 탈지분유 생산에는 거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생크림, 탈지분유 등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구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공급가도 30%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케이크와 빵,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생크림과 버터, 탈지분유를 상당량 사용하는 제과·제빵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준비된 은퇴... 노후가 든든”

삼성생명, 국내 최대 '은퇴연구소' 설립

은퇴 후 노인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 210만원 정도. 하지만 실제 준비된 자금은 평균 137만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삼성생명이 전국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필요한 돈의 3분의2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삼성생명 박근희(맨 오른쪽) 사장이 지난 10일 은퇴연구소 개소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사장, 김상항 자산운용부총장, 우재홍 은퇴연구소장, 윤병철 FP협회장, 남삼구 고려대 부총장. <삼성생명 제공>

으로 지나간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문제는 은퇴연령이 56세로 빨라지면서 자금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노후에 쓸 돈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 진전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은퇴 후 이수'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최대 '싱크탱크'가 최근 문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은퇴연구소'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의식과 준비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며 "은퇴 대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선진형 은퇴설계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기업이 만든 전문연구소로는 드물게, 연구인력만 100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연구조사팀·퇴직연금팀 등 5개팀 외에 학계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외부 자문위원들도 꾸려 전문성을 강화했다.

연구소는 우선 '은퇴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일본 등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은퇴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등을 마련해 바람직한 은퇴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연구소는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전환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로 '부동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를 제시했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자산이 부동산 40%·금융자산 6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집이나 부동산에 74%가 몰려 있어, 은퇴 후 유동성 확보에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 초대소장은 자산운용업에서 널리 알려진 우재홍 씨가 맡았다.

우 소장은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는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재무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은퇴 후 어떻게 살지조차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종합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jhferry.com

“내 차로 제주도까지 1시간 50분” 초쾌속 오렌지호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제 1회 장흥해운-오라C.C 오렌지곶샷골프대회개최

내 차에 골프백을 싣고, 제주 명문 오라C.C로 파르고, 편안하게...
제주로 가는 가장 빠른 초쾌속선 오렌지호와
아마추어 골퍼인들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시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대회장소	오라 C.C
참가규모	120명 (30조)
참가자격	아마추어 골퍼인 누구나
참가문의	장흥해운 공식 협력사

오라관광 064)747-4900
 대야여행사 02)515-6318
 헬로우 제주 1644-0640
 정남진투어 1577-7616
 나산항공여행사 062)523-9090
 클럽모두 062)228-8004
 그린여행사 062)243-3344

*사업자등록번호 616-01-01370 *관광사업자등록번호 서울 142호 *통신사업자등록번호: 제2009-가주연통-0035호
 *본 상행의 예민 및 민원은 오라관광의 책임하에 해결됩니다.